

무궁테라스(2020 년 8 월 뉴스)

(Moogoong Terrace/ 4848 N Kedzie Ave Chicago, IL 60625 Tel : 773-478-0085)

코비드(COVID)-19 업데이트



7 월 19 일부터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에서는 집밖을 나올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시카고시에서는 7 월 31 일부터 코비드-19 케이스가 많은(RED ZONE) 22 개주(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 호, 아이오와, 캔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 캐롤라이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미주리 주, 위스콘신 주, 네브래스카 주 및 노스 다코타 주)에서 여행을 갔다가 시카고로 돌아오거나, 방문을 오는 사람들은 14 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때는 \$100 에서 \$7,000 까지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하네요. 현재로는 4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호숫가의 비치도 상황에 따라 개방하기도 닫기도 하고, 음식점에서도 야외 좌석에서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집안에서 모이는 인원도 5 명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다니기,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혹시 기침이나 열이 있으면 반드시 집에
기거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기... 잊지 마세요!!!! “

알려드립니다

- 1) 매년 10 월에 하던 에너지 보조 신청을 올해에는 코비드(COVID)-19 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겨서 7 월 27 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라서 절차가 조금씩 바뀌는 관계로, CEDA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이 끝난후, 무궁 주민의 신청서는 8 월 17 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7 월달에 받은 전기요금(ComEd)고지서를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가져주세요.
- 2) 8 월 10 일 월요일 오전 9 시에는 발닥터 김선웅님이 무궁테라스를 방문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분은 미리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알려주세요.
- 3) 11 월 3 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우편투표용지 신청서가 메일로 오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가지고 오시면 컴퓨터로 신청해 드립니다.

4) 시카고한인회에서 체온계와 마스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코디네이터에게 오시면 체온을 체크해 드립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운동실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8 월 6 일까지 메니저에게 알려 주세요.



8 월에 생신 맞으신분

최상묵-213 호(5 일), 이금구-413 호(7 일), 이한나-503 호(8 일)
김경자-206 호(12 일), 김형찬-216 호(16 일), 김정향-202 호(16 일)
전연화-316 호(24 일), 김광운-212 호(28 일), 권상규-104 호(30 일)



축하 드립니다!!

무궁 주민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에서 2020 년 2 월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여성”의 주제로 글쓰기 행사를 하였는데, 307 호에 사시는 김경자님께서 입선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목: 이웃집 권사님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혼자 시련을 겪고 있는 듯하고, 정말 모든 것에 지쳐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저는 좋은 이웃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언제나 명랑하시고 비록 마음은 외롭지만, 겉으로는 일체 표현이 없으신분을 이웃에서 뵈게 되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보다는 둘이 좋다는 것을 둘이서 사시는 분은 절대 못 느끼고 이해 못 하실 테지만, 정말 외로운 분이신 걸 가슴 깊이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니어 아파트지만 밤에 주무실 때는 그 누구든 문을 잠그고들 주무시는데, 바로 옆방이니 지나면서 문을 열어보는데 잠겨있었습니다. 큰소리로 막 부르니 “응.....,응응.” 하시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엔지니어에게 부탁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머리부터 얼굴까지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괜찮아, 괜찮아. 수건으로 꼭 누르고 지혈시키면 돼.” 하시더군요. 왜 이렇게 되셨느냐고 물으니,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모서리에 머리를 찰랐다고 하십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지혈은 되었지만 걱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권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매일 아침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권사님방을 새벽 7 시쯤이면 어김없이 문을 쓱 밀어

보고 의자에 앉아 계시면 안심하고 되돌아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나 저는 아주 오래전에 너무도 일찍이 남편을 잃었지만, 언제나 뜨개질을 하시어 갖고 싶은 사람, 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심지어 노숙자에게까지 지금도 행복한 나눔을 하신답니다. 언젠가 저에게 “자네는 친정엄마와 같은 창원 황씨이니 서로 의지 하면서 여기서 사는 날까지 살아보자.” 라고 하시고, “세상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사는 거야.” 하시면서 지난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셨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년 조금 넘게 하시고 딸도 낳으셨는데, 이 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불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긴긴 세월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사셨을가 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그렇게 10여년이 흘렀답니다. 오직 기다리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가시는 일. 예전에 따님과 같이 교회 생활하시던 친구를 양딸로 삼으시고 그렇게 의지하고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시작하시어 온갖 정성과 외로움을 맘껏 쏟으면서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인생의 기복도 많으시지만, 너무나 철저히 살아오신, 하나님께 인생과 삶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 권사님의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모습에 나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친근히 교제하며 권사님의 모든 것을 배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지루한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뜨개질로 한땀 한땀 엮어 나가듯이 시간을 역어가신 권사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 주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 외로움도 식구의 이야기도 표현을 절대 안하시는 분. 내가 외롭고 힘들 때면 “나의 삶을 남에게 필요없이 이야기 하지마.” 라고 하시고, 저에게 더 큰 아픔과 외로움을 나누시며 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랄랄라~.”

“별들이 ~ 소곤대는~홍콩의 밤거리~” 라고 흥얼거리시면서 “랄랄라~.” 노래로 마음 달래시는 것을 늘 뵈고는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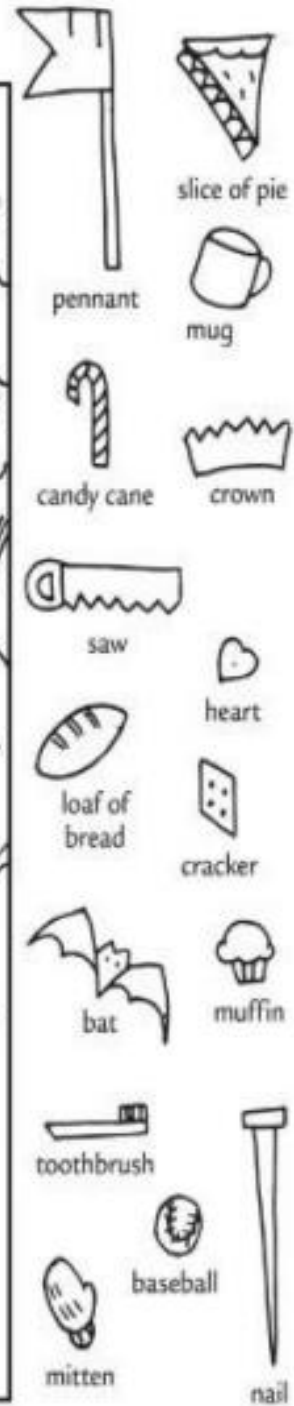
짜증나고 힘들때 한번 더 가서 문 두르려보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 하시면서 “3층 반장 왔어? 고마워.” 하시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상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사는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의 삶을 남에게 쓸데없이 절대 얘기하지마.” 하시던 권사님의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철저히 뿌리 박혀 숙연해지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 집니다. 권사님께서 그동안 못다한 사랑과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좋은 시간과 웃음 짓는 행복한 2020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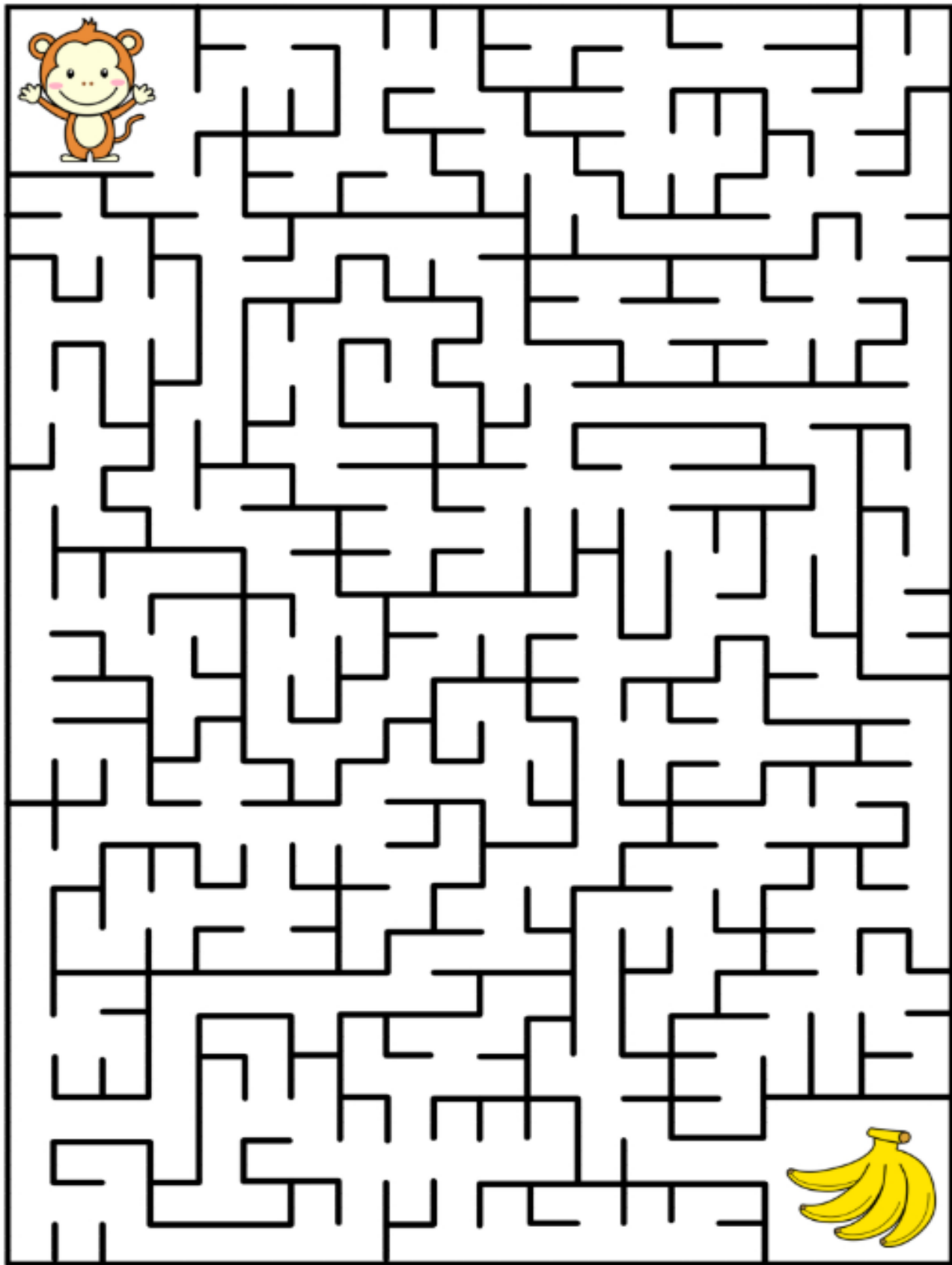
By Marilee Harrauld-Pilz



Pennant(깃발), slice of pie(파이조각), mug(컵), candy cane(막대기 사탕), crown(왕관), saw(톱), heart(하트), loaf of bread(빵), cracker(크래커), bat(박쥐), muffin(머핀), toothbrush(칫솔), baseball(야구공), mitten(병어리 장갑), nail(못)

답을 다 맞추어 코디네이터에게 가지고 오시면 예쁜 스틱커드려요..5 개 모으시면 연말에 상도 드립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찾으러 가려고 하네요.. 어느길로 가야 할까요?



단어 찾기

반드시 대각선으로 연결하여 주어진 단어를 모두 찾아봅시다.

기억나시죠	등사기	보온도시락	신발주머니	조개탄
공중전화	등화관제	불쏘시개	양은도시락	주택복권
남포등	망태기	새소년	운동장조희	청자담배
대포집	무쇠펌프	석유곤로	인력거	칼갈아요
두레박	백과사전	수동재봉틀	전차	함석물통

기	초	체	력	수	로	타	리	이	두	박	근	가	죽	백
두	억	시	니	곤	동	물	원	구	경	레	이	저	과	일
하	바	나	유	채	꽃	재	공	원	운	차	박	사	촌	형
함	구	석	시	운	전	증	봉	동	경	유	전	개	발	명
정	석	방	식	쇼	전	보	장	틀	림	없	이	수	제	화
세	숫	물	배	화	방	조	각	남	쪽	집	유	관	기	관
상	무	담	통	물	회	오	징	어	포	자	화	자	찬	성
기	자	쇠	양	지	머	리	보	대	위	등	잔	불	권	거
청	요	리	펌	은	미	온	적	신	사	진	관	복	력	간
칼	국	수	개	프	도	라	지	기	발	견	택	인	증	샷
말	갈	기	아	시	아	시	루	떡	태	주	민	새	탄	원
신	생	아	락	미	쏘	쥐	락	펴	락	망	머	개	소	임
앞	으	세	요	연	탄	불	고	기	백	반	조	니	작	년

기억나시죠? 한때는 유용했고 친숙했던 물건들입니다.

모습도 떠올려 보시고, 어떻게 썼는지도 기억해 보세요.

이페이지에 있는 낱말 퍼즐은 Korean American Silver Lining Initiative 라는 단체에서 연장자분들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